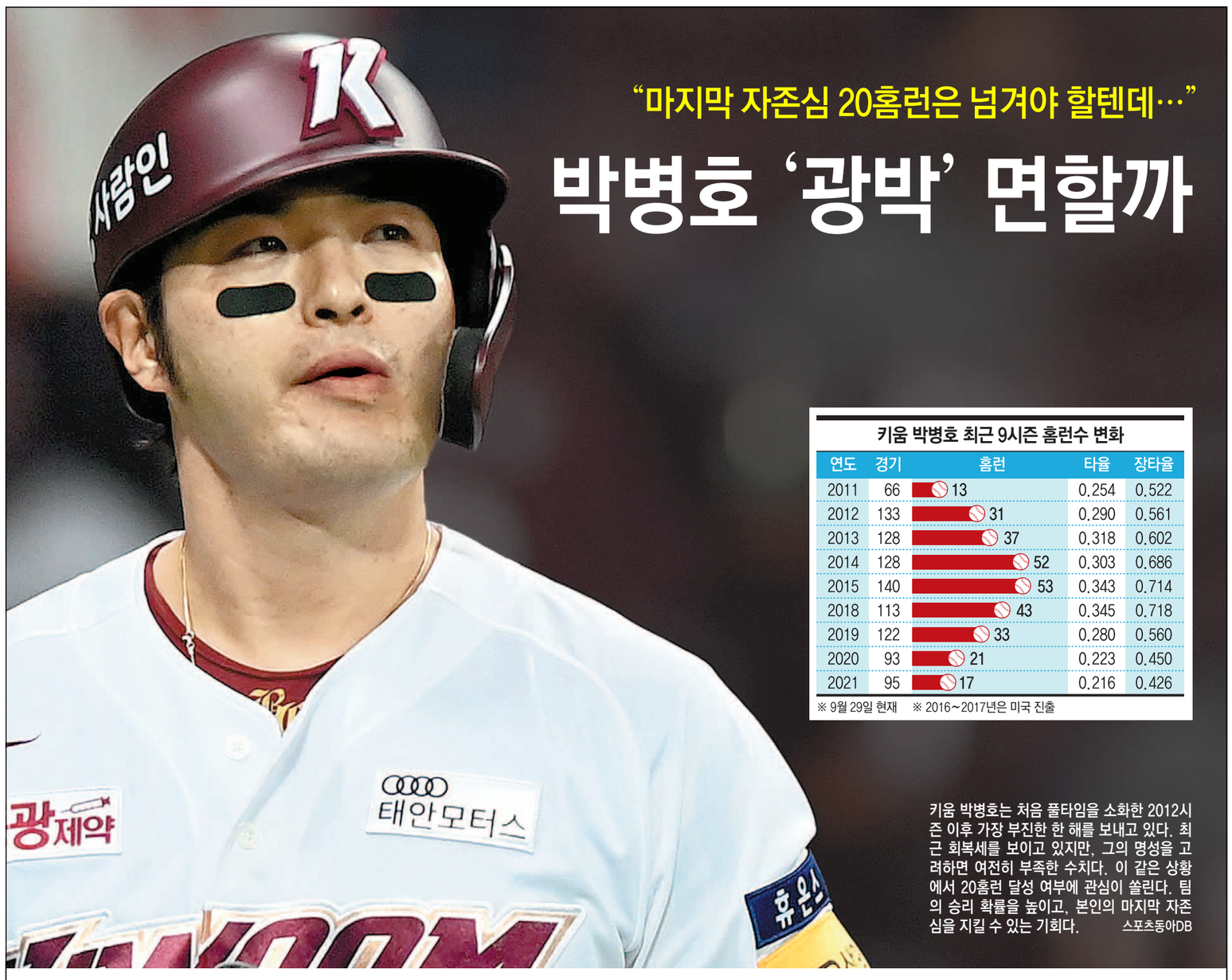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마지막 자존심 20홈런은 넘겨야 할텐데…"

박병호 '광박' 면할까

키움 박병호 최근 9시즌 홈런수 변화

연도	경기	홈런	타율	장타율
2011	66	13	0.254	0.522
2012	133	31	0.290	0.561
2013	128	37	0.318	0.602
2014	128	52	0.303	0.686
2015	140	53	0.343	0.714
2018	113	43	0.345	0.718
2019	122	33	0.280	0.560
2020	93	21	0.223	0.450
2021	95	17	0.216	0.426

※ 9월 29일 현재 ※ 2016~2017년은 미국 진출

키움 박병호는 처음 풀타임을 소화한 2012시즌 이후 가장 부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명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홈런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고, 본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스포츠동아DB

29일 현재 17홈런…홈런왕 명예에 스크래치
타격감 안 좋았던 지난해 21홈런 때려 '면피'
최근 방망이 회복세…장타페이스엔 2% 부족
박병호 살아나야 키움 가을야구도 대박 가능

'거포'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기록이다.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5)가 2할대 타율이 무너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9월 중순부터는 매 경기 안타를 뽑아내며 조금씩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데뷔 이래 최악의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병호는 29일까지 95경기에서 타율 0.216, 17홈런, 59타점, 41득점을 기록했다. 2020시즌(0.223)보다도 타율은 더 떨어졌고, 홈런과 장타율 역시 저조하다. 8월 한 달간 타율이 0.154에 그치고, 시즌 타율마저 한때 0.205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반등세를 그리며 '1차적 방어'에는 성공했다.

박병호라는 거포의 이미지가 상대 투수들에게 주는 위협감은 상당하다. 언제든 홈런을 맞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금의 타율로는 위압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강점을 살리기 위해선 장타력에서 옛 위용을 되찾아야 한다. 먼저 눈앞에 놓인 20홈런 고지부터 밟을 필요가 있다. '국민거포'라는 명성까지 들었던 타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다.

2년간의 미국생활을 접고 2018년 KBO리그에 복귀한 박병호는 그해 43홈런을 때렸다. 2019년에는 33홈런을 터트렸고, 지난해에는 21홈런으로 시즌을 마쳤다. 공인구의 반발력 하향조정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해마다 홈런이 줄고 있다.

올 시즌에는 현재 17개의 아치를 그리고 있다. 소화한 경기는 2020시즌(93경기)보다 오히려 많다. 경기당 홈런수는 현재까지 더 줄어든 것이다. 썩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 분발해야 한다.

키움은 잔여경기가 적은 편에 속한다. 박병호가 타율을 수직상승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다. 상대 투수들에게 다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비책은 결국 홈런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0홈런은 넘어서야 개인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박병호는 올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권리를 행사할 게 유력하다. 거포에게 홈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행히 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막바지에 찾아왔다. 가을야구를 향한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키움에 홈런타자의 부활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다. 여러모로 박병호의 20홈런은 팀은 물론 본인에게도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상징적 기록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서 '어른이' 연예인들 펑펑 운 사연 ▶2면

'골때녀'의 '미다스의 손' 박선영 인터뷰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우승을 차지한 FC불나방의 주장 박선영이 9월30일 인터뷰에 앞서 축구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제가 '여자메시'라고요? ㅋㅋ 학창시절 육상·농구한 덕이죠

10대들은 축구선수로 착각…"저, 인기배우예요"
축구경기 챙겨보는 '축구광'…"요즘 제2전성기"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래요. '어, 축구다!'"

배우 박선영(51)이 주변의 반응을 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딜 가든 "경기 잘 보고 있다"며 쏟아지는 응원을 받는다는 그는 "심지어 10대 친구들은 내가 축구선수인 줄 안다"며 신기해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에서 에이스로 활약을 펼친 덕분이다.

실제로 '골때녀'가 일으킨 여자축구 열풍의 중심에 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라운드를 바람처럼 누비는 승부사 기질,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감독도 감탄할 만한 지략으로 소속팀 FC불나방을 최종 우승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또 프로그램이 첫 방송된 6월 이후 여성들의 축구클럽 신규 가입률을 400%가량 치솟게 하며 여자축구 열기를 제대로 불어넣은 주역으로 꼽힌다.

9월30일 만난 박선영은 "'골때녀'를 보고 딸과 함께 축구클럽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중년 시청자도 봤다"면서 "중장년층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 뿌듯하다"며 눈을 반짝였다.

● "8개월 동안 '축구인'으로 살았다"

박선영은 '골때녀'의 '미다스의 손'으로 통한다. 2월 2부작으로 방영한 파일럿과 이번 시즌에서 모두 소속팀 FC불나방이 우승했고, 각 팀의 주축 멤버들을 선발해 치른 올스타전에도 출전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제가 '골때녀'의 핵심이란 평가는 과찬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감각이 좀 더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출연자들의 사랑과 선망을 한 몸에 받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좋았어요. FC액셔니스타의 (최)여진이가 '언니 호적에라도 들고 싶다'는 말을 방송으로 보고 얼마나 웃었는데요."

'골때녀'로 축구를 처음 접했지만 사실 그는 운동과 인연이 깊다. 중고등학교 때 육상, 1990년 동덕여대 체육과 입학 후 농구를 한 경험이 제대로 힘을 발휘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